

대만 차이잉원의 탈중국화정책 — 양안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공유식**·강준영***

- I. 서론
- II. 대만 민진당의 재집권 배경
- III. 차이잉원의 탈 중국화정책의 함의
- IV. 양안관계에 미치는 파장
- V. 결론

국문요약

2016년 선거에서 민진당과 차이잉원이 완승을 거두었다. 이러한 견고한 민의를 바탕으로 차이잉원은 탈중국화 정책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민진당의 색채가 강한 인사를 양안 및 외교정책에 배치해두고, 전환기 정의, 문화독립, 친미 원중 등의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공간을 압박하고, 중국여행객의 대만여행을 제한하는 동시에, 국민당과 국민당계 지방정부의 수장들을 중국으로 불러서 대만의 분열을 획책하는 등의 양면작전을 펴고 있다. 향후 대만의 이러한 탈중국화 정책은 지속될 것이므로 당분간 양안관계는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본 논문은 201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으로 연구된 논문임.

** 주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정치경제전공 교수.

주제어 : 양안, 탈중국정책, 민진당 재집권, 인사정책, 중국의 압박.

I. 서론

작년 5월 20일 차이잉원(蔡英文)이 중화민국의 제14대 총통(總統:우리 나라 대통령에 해당)으로 취임하였다. 중화민국(이하 대만) 역사상 최초의 여성총통이고 2000년에 이어 또다시 민진당(民主進歩黨)소속의 총통이다. 이로서 대만은 세차례의 정권교체를 이뤄내며 민주화가 공고해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양안관계는 마잉지우(馬英九)의 집권 시기의 협력관계와는 정 반대의 흐름으로 접어들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차이잉원의 정책이 마잉지우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양안관계는 남북한 관계와는 정세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2차대전 이후 국제정세가 냉전의 상황으로 바뀌면서 형성된 냉전의 산물이자 냉전이 끝난 지금도 한반도와 더불어 마지막 냉전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대만문제는 국내문제로 간주하기에 국제문제화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현재의 정세는 그러하다. 냉전시기의 양안관계는 단순하였다. 49년 중국의 국가건립과 중화민국의 대만으로의 패퇴 이후 양안관계가 성립된 이후, 양안관계는 적대적 관계였고, 이 관계는 덩샤오핑(鄧小平)의 등장 때까지 지속되었다.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덩샤오핑은 대만에 대하여도 문호를 개방하며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개념을 제시, 평화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만은 이에 대하여 중국과는 접촉, 협상,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3불(不)정책의 지속으로 대응하였고 이는 1987년 대만이 중국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할때까지 지속되었다. 양안은 1987년 교류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양안간 교류는 급격히 늘어났다. 1992년 양안은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정치적 회담을 가져 92共識(92컨센서스)라는 합의를 하였다¹⁾. 이 이후로 중국은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一國兩

1) 사실 이 합의는 양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한다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制)’를 주장하며 대만에게 1992년에 있었던 ‘92년 컨센서스²⁾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반해 대만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달랐고 이는 해협양안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즉 중국측의 일관된 입장은 상수이고 대만의 정치변화가 변수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1996년 최초의 직접선거 바로 전해인 95년 당시 대만총통이었던 리명후이(李登輝)가 미국 코넬대학교 졸업생자격으로 모교방문하여 연설을 한 후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두차례 군사훈련과 미사일을 발사를 통하여 독립성향을 띠던 리명후이에 대하여 간접 경고를 하였다. 리명후이는 집권이후 지나친 중국에의 경제의존을 걱정하여 동남아로 투자노선을 바꾸는 남향정책을 실시, 기업들에 이를 권유하였고, 양안은 특수한 나라와 나라의 관계라는 양국론으로 사실상 대만의 독립상태를 주장하였다. 이어 정권을 잡은 천수이비엔(陳水扁)은 민진당의 원칙인 대만독립노선의 실천에 노력을 다하면서 양안관계는 정냉경열(政冷經熱)의 상태가 지속되었다.³⁾

2008년 국민당이 재집권하면서 마잉지우 총통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대만의 경제적 활로를 찾으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92컨센서스의 원칙을 천명하며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꾀하였다. 중국은 이에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의 체결로 화답하고 WHA, 세계민항기구 등에 읍져버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소위 말하는 외교휴전을 통하여 대만의 국제공간에 약간의 여유를 주기도 하였다.

하나의 중국의 개념이 양측의 의미가 다르다.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은 국가 실체로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하고 대만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은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의 중국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합의리는 자체가 모호성의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92 컨센서스”라는 것은 2000년 국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서 그 당시 대륙위원회 주임(장관급)이던 쑤치(蘇起)가 국민당의 대륙정책을 총괄 언어로 표현한 것, 스스로도 그 뜻은 당시 총통이던 리명후이가 말하던 “하나의 중국, 각자 표술(一中各表)”이라고 하였다. 『蘇起坦承 自創九二共識』, 『蘋果日報』, 2006년 2월22일, <http://www.appledaily.com.tw/appledaily/article/headline/20060222/2420410>.

3) 이 시기의 양안관계에 대하여는 문홍호,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서울, 폴리테리아, 2007, 1-86쪽을 참고.

하지만 이번에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정권을 잡으면서 양안관계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처럼 양안관계의 변화는 대만의 정치상황의 변화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대만정치의 변화가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이번 대만의 정권교체가 양안관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논하여 이를 증명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본문에서는 먼저 이번 대만의 대통령선거와 입법원(국회에 해당) 선거의 결과와 이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다음 차이잉원의 양안정책 중 특히 탈중국화 정책의 함의와 탈중국화 정책이 양안관계에 미치는 파장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것이 향후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 전망할 것이다.

II. 대만 민진당의 재집권 배경

금년 1월에 있었던 총통과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은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대만 민주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2000년 천수이비엔이 당선되었지만 입법원에서는 국민당, 그리고 국민당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지는 친민당, 신당(이를 泛藍이라고 함)이 다수를 점하였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민진당의 완전집권이라고 부른다. 차이잉원은 바로 전 선거인 13대 총통선거에서 마잉지우에게 패하였다. 어떤 이유에서 열세였던 민진당이 총통과 입법원 모두 압승을 거두는 결과가 나왔을까?

〈표 1〉 14대 총통선거 결과⁴⁾

기호	후보		소속 정당	득표	
	총통	부총통		득표수	득표율
1	朱立倫	王如玄	中國國民黨	3,813,365	31.04%
2	蔡英文	陳建仁	民主進步黨	6,894,744	56.12%
3	宋楚瑜	徐欣瑩	親民黨	1,576,861	12.84%
총유권자수			18,782,991		
투표인 수			12,448,302		
유효표			12,284,970		
무효표			163,332		
투표율			66.27%		

<표 2> 입법원 선거 결과⁵⁾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평의원주인			산의원주인			총계	
	득표수	득표율	의석 수	득표수	득표율	의석 수	득표	득표율	의석 수	득표수	득표율	의석 수	의석 수	비율
民主進步黨	5,382,949	45.08%	49	5,370,953	44.04%	18	17,052	18.02%	1	16,658	14.75%	0	68	60.18%
中國國民黨	4,622,756	38.71%	20	3,280,949	26.90%	11	55,565	58.73%	2	46,045	40.76%	2	35	30.97%
親民黨	150,021	1.26%	0	794,838	6.52%	3	6,191	6.54%	0	-	-	-	3	2.65%
時代力量	351,244	2.94%	3	744,315	6.10%	2	-	-	-	-	-	-	5	4.42%
無黨團結聯盟	-	-	-	77,672	0.64%	0	-	-	-	27,690	24.51%	1	1	0.88%
無黨籍(무소속)	649,371	5.44%	1	-	-	-	11,497	12.15%	0	7,573	6.70%	0	1	0.88%

먼저 해바라기 운동으로 대표되는 민심의 이반이다. 2014년 3월 ECFA의 후속 조치중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체결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입법원과 행정원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2008년 마잉지우는 대만의 경제적 침체를 양안관계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그것의 결정체가 2010년의 ECFA⁶⁾ 체결이다. 이것을 위해 92컨센서스를 인정하였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여 체결한 해인 2010년 한 해만 기대심리로 10%대의 반짝 성장을 기록하였고 그 뒤로 경제 침체는 지속되었다. 게다가 외자유치를 위한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외자가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본시장으로 들어가 특히 부동산 값만 더 올라갔고 이로 인하여 빈부차이만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높은 실업률,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빈부차이 증가, 장기간 경기침체(2000년부터 시작된)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마잉지우의 양안정책이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절정은 ECFA의 후속조치중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경우에 다다랐다. 대만 내에서 서비스무역협정에 관하여 여러 가지 괴담이 떠돌면서, 이것이 체결될 경우 특히 출판분야에서 중국의 언론통제가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4) 中華民國中央選舉委員會 홈페이지, <http://www.cec.gov.tw/>.

5) 출처 <표 1>과 같음.

6) ECFA,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2010년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FTA로 가는 기본협정. 이 협정의 특징은 EHP, 즉 조기수확프로그램에 있다. 이는 향후 관련된 협정을 하나씩 체결해 나가되 시급한 항목은 먼저 서로 개방하는 것으로 하였다. 지만수·이승신·여지나,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2010권 7호, 1-2쪽,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global_econo&nttId=185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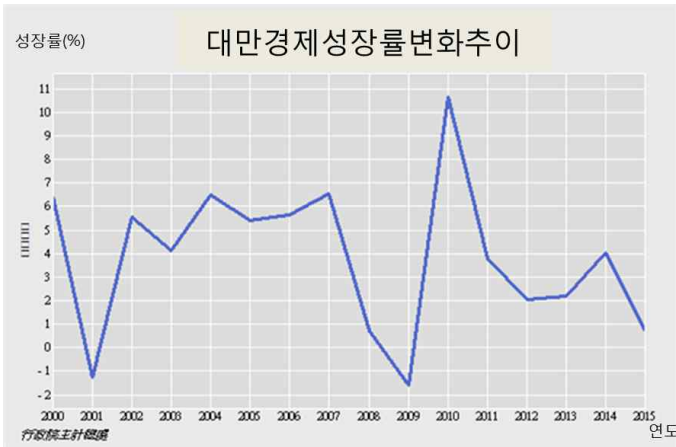
서비스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중국의 인적자원이 유입되어 대만의 실업률을 더 높일 것이라는 공포심도 조성되었다.

민진당측에서 이를 빌미로 이 협정의 체결을 반대하고, 각 조항별 심사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잉지우의 입장은 양안간은 형식적으로는 정식 국가대 국가관계가 아니므로 그럴 법적인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표결에 방법을 갖고 있는 왕진핑(王金平)입법위원장이 마잉지우를 도와주지 않자 마잉지우는 국민당 입법위원들만으로 통과를 강행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반대파, 특히 2008년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린페이판(林飛帆)은 SNS를 통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이에 순식간에 많은 학생들이 동조하여 입법원과 행정원을 점거하는 사태로 발전한다. 이것이 바로 해바라기 운동⁷⁾이다.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동참한 이유는 서비스무역협정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전반적인 청년실업(우리의 88만원 세대에 비견되는 22K세대), 빈부차이의 확대로 인한 사회불만 증가등 간접적인 이유도 있고, 직접적으로는 마잉지우가 충분한 설명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데에 대한 반발, 즉, 소통의 시대에 소통을 하지 않고 강행한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또한, 2000년대에 학교를 다니면서 민진당의 역사관이 반영된 교과서로 공부한 세대들은 국민당의 중국위주의 역사관에 물들지 않고 순수 대만 독립역사관을 가지게 되었고,⁸⁾ 이러한 세대들은 마잉지우의 친중국노선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번 학생운동을 통하여 폭발한 것이다. 이 해바라기 운동으로 인하여 마잉지우정권과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잃게 되어 그해 말에 있었던 광역지방단체장 선거에서 타이베이를 빼기는 등 참패를 기록하게 된다. 이 외에도 공무원연금개혁의 시도로 기존의 지지층이던 군인, 교육자, 공무원의 삼각판대의 지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도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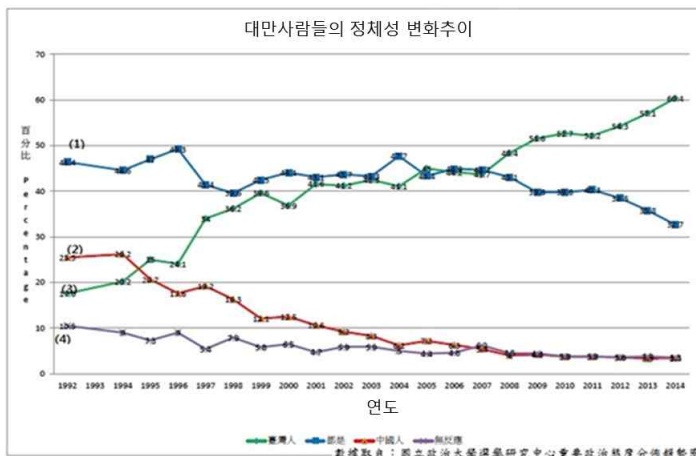
7) 해바라기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를 동조하는 한 시민이 이 학생들에게 해바라기를 보낸 후 불려졌다. 「占領立院 花店老闆送「希望」向日葵給抗議學生, 群衆」, 『今日新聞』, 2014년 3월 20일, <http://www.nownews.com/n/2014/03/20/1156798>.

8) 이를 천연독(天然獨)이라 부른다. 「台灣年輕世代「天然獨」逾8成支持台獨」, 『自由時報』, 2015년 11월19일, <http://news.ltn.com.tw/news/politics/breakingnews/1513507>.

〈그림 1〉 대만의 경제성장률 변화추이⁹⁾

또한 정체성 문제에서도 이전보다 반중국 성향이 강해졌다.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점점 낮아지고 대만인이라는 정체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림 2)는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인의 정체성과 대만인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다. (1)번 선이 대만인, 중국인 모두, (2)번 선이 중국인, (3)번 선이 대만인, (4)번선은 무응답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중국인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대만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진당이 더 유리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9) 대만 行政院主計處 홈페이지(<https://www.dgbas.gov.tw>) 참고.

〈그림 2〉 대만인들의 정체성 추세분포표¹⁰⁾

두 번째 이유는 국민당내부의 문제이다. 국민당이 배출해낸 최고의 정치상품인 마잉지우지만 당내 세력은 원로들의 입김이 더 강하였다. 전 주석인 리엔잔(連戰), 우버슝(吳伯雄), 왕진핑(王金平) 등의 원로들과 마잉지우는 그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특히, 왕진핑은 남부정치파벌의 대표자로서, 12대 총통선거와 13대 총통선거시 모두 부총통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결국 마잉지우는 왕을 선택하지 않았다. 정치역학적으로도, 남부인 까오슝(高雄)에 근거를 둔 왕진핑의 득표력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2대 때는 타이난(臺南)의 샤오완창(蕭萬長), 13대는 중부지역인 난투우(南投)의 우뚱이(吳敦義)를 런닝메이트로 택하였다. 서비스무역협정을 둘러싼 왕진핑의 비협조와 이에 왕진핑을 탄핵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마잉지우는 결국 좀 더 이른 레임덕에 걸리게 되었고 이런 국민당의 당내권력투쟁은 국민당의 지지도를 더욱 낮추주게 하였다.¹¹⁾

그리고, 지방선거와 입법원 선거에서도 참패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낮

10) 趙永升, 臺灣選舉、香港佔中與柏林牆, 財富中文網, 國立政治大學 選舉研究中心, http://www.fortunechina.com/column/c/2014-12/26/content_232205_2.htm 재인용.

11) 「洪耀南, 馬王鬥波及2014選舉、南北港都首當其衝」, 『今日新聞』, 2013年9月18日, <http://www.nownews.com/n/2013/09/18/972759>.

은 국민당의 지지도 이외에도 세대교체의 실패도 한 원인이 된다. 지방선거와 입법원 선거에서도 새로운 얼굴을 내지 못하여 세대교체에 성공하여 새로운 정치스타들을 배출한 민진당에게 완전히 밀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타이베이 시장에서 리엔판의 아들 린옌성원(連勝文)이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패배하였고, 타이난시도 3선에 성공했던 후즈창(胡志強)이 학생운동 지도자였고 민진당의 차기주자 중 한 명으로 지목받고 있는 뤼지아롱(羅嘉龍)에게 패배하였다. 입법원 선거에서도 전 타이베이 시장인 하오룽빈(郝龍斌)이 낙선하는 등, 새로운 얼굴을 내세우는데 실패하였다.¹²⁾

해바라기 운동과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로 더욱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당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선출된 홍시우주(洪秀柱)후보를 억지로 주리룬(朱立倫) 후보로 바꾸는 등, 적전분열을 보이다가 결국은 총통, 입법원들 다 놓치는 결과를 가져왔다.¹³⁾

이렇듯, 떠나간 민심과 대만정체성의 증가, 국민당의 자중지란, 세대교체 실패등의 이유로 민진당이 이번 선거에서 완전한 집권을 이룩한 주요 배경이 된다.

Ⅲ. 차이잉원의 탈 중국화정책의 함의

민진당의 당강(당헌장)에는 대만독립을 지향한다고 되어있다.¹⁴⁾ 이러한 민심의 지원을 등에 업은 차이잉원 정부는 마잉지우가 인정한 92컨센서스에 대하여 부정은 안하지만 긍정도 안하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양안관계의 현상유지를 주장하면서 대내적으로는 탈중국화(혹은 대만화)정책을 취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차이잉원은 92컨센서스는 92년에 있었던 사실이라는 표현으로 돌려서 언급하였고, 양안관계

12) 선거결과는 지방선거 <http://udn.com/vote2014/analyze>, 입법원선거, <http://election.ltn.com.tw/2016/>.

13) 「藍營敗選歸咎不團結 換柱讓支持者失望」, 『自由時報』, 2016년 2월 3일, <http://news.ltn.com.tw/news/politics/breakingnews/1593726>.

14) 「民主進步黨黨綱」, <http://www.dpp.org.tw/history.php>.

는 항상 현상유지라는 기초를 유지해야 하고, 대만의 민의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⁵⁾

1. 인사정책

차이잉윈의 이러한 정책은 먼저 인사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교부장관과 대륙위원회 주임(우리나라 통일부장관에 해당)의 인사에서 각각 기존의 외교관인 리따웨이(李大維)와 장샤오위에(張小月)를 임명하였고, 경제발전계획을 책임지는 국가발전위원회 주임도 마잉지우 ECFA의 이론가인 천티엔즈(陳添枝)를 임명하여, 중국과의 경제교류와 함께 남향정책도 기획하게 하였다. 이는 기존의 관료조직을 크게 흔들지 않은 선에서 정책 집행의 연속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의미에서 기존 관료들을 주요 포스트에 임명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외교안보 정책결정에 주요 영향을 주는 자리에는 민진당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임명하였다. 총통이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보위원회의 비서장(사무총장격)으로 천수이비엔 정권시절 주미대표와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을 지낸 우자오시에(吳釗燮)를 임명하였고 대륙위원회 부주임으로 대만독립적 성향을 띠는 썩크탱크였던 양안정책연구회 소속의 대학교수 치우추이정(邱垂正)을 임명하는 등 정부 곳곳의 자리에 민진당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¹⁶⁾ 특히 국가안보위원회는 총통산하기관으로 외교안보 관련정책을 총통이 직접 관장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양안관계 관련 썩크탱크와 양안간 교류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협기금회(海峽基金會)도 민진당 계열의 인사로 임명하였다. 해협기금회 이사장인 티엔홍마오(田弘茂)¹⁷⁾는 천수이비엔 정권의 초대 외교부장관이자 원로학자이고, 중국연구 관련 싱크탱크인 원경기금회(遠景基金會)의 이

15) 「中華民國第14任總統蔡英文女士就職演說」, 中華民國政府新聞稿, 2016년 5월 20일, <http://www.president.gov.tw/Default.aspx?tabid=131&itemid=37408&rmid=514>.

16) 顧爾德, 「分析: 蔡英文的人事布局」, 『FT中文網』, 2016년5월18일, <http://www.ftchinese.com/story/001067591?full=y>.

17) 「海基會董事長 前外長田弘茂接任」, 『自由時報』, 2016년 9월 1일, <http://news.ltn.com.tw/news/politics/paper/1027457>.

사장은 천수이비엔 정권에서 외교부장관과 국가안보위원회 비서장을 지낸 천탕산(陳唐山)을 임명하였고, 국제관계 및 양안관계 싱크탱크 중의 하나인 아태화평기금회(亞太平基金會)의 이사장에는 민진당 원로인 쉬신량(許信良)을 임명하였다.¹⁸⁾ 특히 아태화평기금회는 향후 양안관계보다는 신남향정책의 연구에 더 힘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인사조치들로 미루어 알수 있는 것은, 차이잉원 정부가 기존 관료들을 등용하여 정책집행에서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혼선을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향후 정책기조는 민진당의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천명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표 3〉 중국대륙관련 주요 인사와 인물배경

직 위	이 름	배 경
외교부장	李大維	전주미대사, 직업외교관
국가안보위원회 비서장	吳鈞燮	천수이비엔 정권 시절의 주미대사, 대륙위원회 주임위원. 학자출신.
대륙위원회 주임	張小月	전주영대사, 직업외교관
대륙위원회 부주임	邱垂正	국립금문대학교 교수 민진당성향
국가발전위원회 주임	陳添枝	마정부 정책인 ECFA지지 교수
해협양안기금회 이사장	田弘茂	천수이비엔정권 초대 외교부장관 원로 정치학자.
원경기금회 이사장	陳唐山	천수이비엔 정권 외교부장관, 국가안보위원회 비서장(사무총장)
아태평화기금회 이사장	許信良	민진당 원로. 전 민진당주석.

2. 전환기 정의를 통한 과거청산 및 문화단체 장악

인사정책이외에 국민당에 대한 과거청산도 과거 국민당이 내세운 전통중국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대만이데올로기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환기 정의(轉型正義)’라는 이름으로 국민당이 권위주의

18) 「亞太、遠景基金會董座 許信良、陳唐山出任」, 『自由時報』, 2016년 8월 10일, <http://news.ltn.com.tw/news/politics/breakingnews/1791059>.

시절에 불법으로 점유한 재산에 대한 국고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당을 고사시키려는 전략으로 이해되기도 하여 국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으나 국회에서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6년 6월 22일 대만국회에서 국민당의원들의 퇴장 속에 민진당과 제3당인 시대역량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전환기 정의 촉진조례(促進轉型正義條例)”가 통과되었고¹⁹⁾ 이에 따라 8월31일에 “불법당재산처리위원회(不當黨產委員會)”가 구성되어 국민당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불법으로 점유한 국유재산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²⁰⁾ 첫 번째 활동으로 11월 25일 국민당 소유의 중앙투자주식회사(中央投資股份有限公司)와 신위타이주식회사(欣裕台股份有限公司)의 주식을 국가에 환수하라는 결의를 하였다.²¹⁾ 국민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여 길거리 투쟁을 선언하는 동시에 이의 불법성을 강조하여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다. 국민당이 권위주의 정권시절, 당재산과 국유재산의 구분이 모호하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실현에는 부합되나 이의 합헌성 여부는 의심받고 있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

문화단체를 민진당 인사로 장악하여 문화계의 대만독립을 꾀하고 있다. 원래 마잉지우측 인사로 이루어졌던 중화문화총회(中華文化總會)의 인사에 개입하여 현 회장인 전 행정원장 리우자오슈옌(劉兆玄)이 11월22일 사퇴하였다. 민진당측에서 이 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인사충돌이 일어났다고 분석할 수 있다.²²⁾

19) 「促進轉型正義條例 立院初審通過」, 『自由時報』, 2016년 6월 22일, <http://news.ltn.com.tw/news/politics/breakingnews/1738338>.

20) 「不當黨產委員會 顧立雄公布完整名單」, 『自由時報』, 2016년 8월 24일, <http://news.ltn.com.tw/news/politics/breakingnews/1804929>.

21) 「黨產會決議 中投及欣裕台股權30天內收歸國有」, 『自由時報』, 2016년 11월 25일, <http://news.ltn.com.tw/news/politics/breakingnews/1898025>.

22) 「蔡政府企圖「洗綠」文化總會 踢鐵板」, 『聯合報』, 2016년 11월 11일, <http://udn.com/news/story/9586/2099186>.

3. 원중(遠中)을 위한 연미, 친일정책

대외정책분야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마잉지우(馬英九)시절의 친미(親美), 우일(友日), 화중(和中)정책에서 연미(聯美), 친일(親日) 원중(遠中)으로의 외교 기조 전환을 통하여 미, 일과 친하게 지내고 이를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외교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냉전의 유산인 대만은 친미일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서 항상 친미의 외교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미국은 항상 최고의 흥행장소였다. 천수이비엔의 중남미 방문 때도 미국을 경유한 것이 뉴스가 될 정도였다. 이번 차이잉원 총통도 중남미 방문시 미국을 경유하여 갔다. 차이잉원도 후보시절 미국 방문 후 미국의 돼지고기 수입개방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는 것이 정설²³⁾이다.

원래 대만은 남중국해의 두 섬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 해안경비대를 정기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전 총통 마잉지우(馬英九)는 퇴임 전 두 개의 섬중 하나인 타이핑다오(太平島)를 방문하여 대만의 영토임을 재천명하였으며,²⁴⁾ 이는 중국과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심지어 민진당이었던 천수이비엔(陳水扁) 전 총통도 타이핑다오를 방문하였다. 이는 친미 이전에 주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차이잉원 정권은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충돌에서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기 위하여 남중국해 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자제하고 있음. 이는 친미를 통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차이정부의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일본과도 그동안의 협력은 더욱 긴밀히 하고, 특히 디야위다오(釣魚島)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사실 디야위다오는 중국

23) 「民進黨對進口美豬有兩岸問題的考量」, 『中央日報』, 2016년 5월 2일, <https://tw.news.yahoo.com/%E6%9C%AC%E5%A0%B1%E9%BB%9E%E8%A9%95-%E6%B0%91%E9%80%B2%E9%BB%A8%E5%B0%8D%E9%80%B2%E5%8F%A3%E7%BE%8E%E8%B1%AC%E6%9C%89%E5%85%A9%E5%B2%B8%E5%95%8F%E9%A1%8C%E7%9A%84%E8%80%83%E9%87%8F-025300397.html>.

24) 「馬英九登上太平島宣示主權：是「島嶼」而非「岩礁」」, 『BBC中文網』, 2016년 1월 28일, http://www.bbc.com/zhongwen/trad/china/2016/01/160128_taiwan_president_itu_aba_island.

이 최근에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과 충돌하고 있지만, 원래 주로 대만 어부들이 인근에서 조업하다가 일본과 충돌이 자주 일어났던 해역인데. 이로 인하여 차이잉원 정부는 시작부터 어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오키노토리(沖之鳥)섬의 어업충돌에서도 한 발 물리서는 태도를 보여 주권문제에 대하여 너무 굽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²⁵⁾ 또한, 일본 방사는 오염지역인 후쿠시마지역의 농산품을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커다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차이잉원의 친일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마잉지우의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너무 높인다고 생각한 차이정부는 리명후이의 남향정책의 뒤를 있는 신남향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협력의 방향을 동남아로 선회하여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홍색공급망²⁶⁾의 형성으로 대만의 산업분업 상에서의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협력처가 필요해서이기도 한 것이기도 하다.²⁷⁾

IV. 양안관계에 미치는 파장

이러한 대만의 탈중국화 경향과 연미, 친일, 원중 경향에 대하여 중국

25) 「沖之鳥島爭議蔡英文與日本有共識? 國民黨質疑有黑箱協議」, 『今日新聞』, 2016년 5월 24일, <https://tw.news.yahoo.com/%E6%B2%96%E4%B9%8B%E9%B3%A5%E7%88%AD%E8%AD%B0%E8%94%A1%E8%8B%B1%E6%96%87%E8%88%87%E6%97%A5%E6%9C%AC%E6%9C%89%E5%85%B1%E8%AD%98-%E5%9C%8B%E6%B0%91%E9%BB%A8%E8%B3%AA%E7%96%91%E6%9C%89%E9%BB%91%E7%AE%B1%E5%8D%94%E8%AD%B0-071357908.html>.

26) 홍색공급망이란 과거에 중국이 한국이나 대만으로부터 중간재를 들여와 최종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던 구조에서 이제는 중간재조차도 중국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생산체인을 말한다. 박지현, 「대만의 위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헤럴드경제』, 12월26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6&aid=0001174646>.

27) 신남향정책에 대하여는 중화민국 정부 공식홈페이지 참조.
<https://www.newsouthboundpolicy.tw/index.aspx>.

은 강은 양면작전으로 민진당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대만의 탈중국화 경향에 대하여 언제나 ‘하나의 중국 원칙’, ‘92년 컨센서스’, ‘양안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현상’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양안은 하나의 중화민족이라는 것을 강조, 같은 민족, 같은 문화라는 것에 호소하고 있다.²⁸⁾

1. 정치분야에서의 중국의 강경정책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양안교류에서도 철저히 지켜져서 10월 20일 항주에서 열린 항주문화컨텐츠산업박람회에서 대만의 원주민위원회소속 관리가 참가하였는데, 주최측에서 원주민위원회의 명칭을 소수민족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원주민위원회의 명패를 내렸다. 이에 대만측은 박람회 철수를 선언하였다.

대만이 92컨센서스를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중국은 대만을 방문하는 관리들의 레벨을 한 등급 낮춰서, 최근에 대만을 방문한 중국의 관리들 중 부국장급 이상의 관리들은 없었다.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활동에 대한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7월에 이탈리아에서 거행된 유엔 FAO 어업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압력으로 대만측 인사들을 퇴장시켰고 ICAO 총회에서도 대만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지 못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하여, 결국 대만은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대만이 강하게 중국과 주최측을 질책하였으나,²⁹⁾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은 각종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재천명하면서 오히려 이는 모두 민진당 정부당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컨센서스’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반박하였다. 최근에 막을 내린 APEC 정상회담에서, 대만서 파견한 송추위(宋楚瑜)에 대하여 경제관료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폄하하였고 시진핑과의 만남도 의례적으로 잠깐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다.

28) 「國臺辦：只有明確同屬一中 兩岸雙方才能接觸互動」, 『新華社』, 2016년 12월 14일.

29) 중국의 각종 압박들은 行政院大陸委員會 홈페이지 大陸情勢季報 2016년 10월, <http://www.mac.gov.tw/>에 정리되어 있음.

또한, 연초에 중국과 감비아의 수교, 12월 21일의 쟁투메프린시페와 대만과의 단교하였다. 이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받아들이지 않은 민진당 정부에 대한 경고이자 압박이라고 해설할 수 있다.³⁰⁾

11월 1일 국민당 주석 홍슈주(洪秀柱)의 중국방문을 허용하고 시진핑과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시진핑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컨센서스, 대만 독립 반대를 다시금 천명하였고, 홍주석은 하나의 중국을 각자 표출한다는 기존의 국민당의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이는 국민당과의 회담을 통하여 민진당 정부를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 2005년의 제3차국공협약과 비견되기는 하나, 그 당시의 국민당의 세력과 지금의 처지는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이번 회담은 대만 정세 변화에 큰 영향력은 없었다고 평가되기는 하나 92컨센서스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국민당과만 대화를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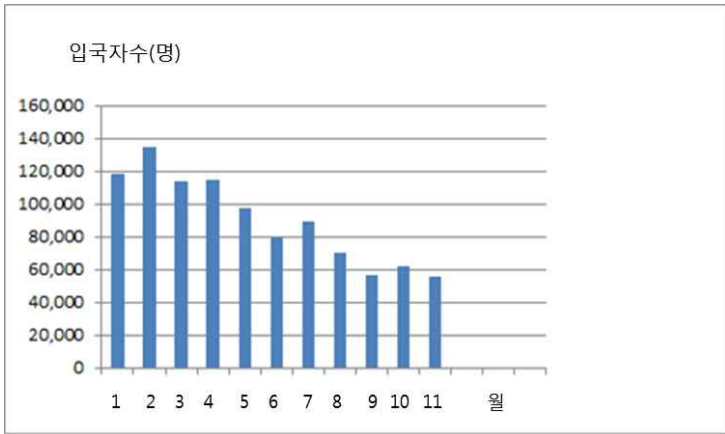
2. 민간 및 경제 분야에서의 강온양면전략

민간분야에서는는 강온 양면의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 여행객의 수를 제한하여 대만 내 여행업자들로 하여금 대만정부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게 하였다.³²⁾

30) 「【聖多美斷交】中國趁機操作—中府：傷害台灣人民感情」, 『蘋果日報』, 2016년 12월 21일, <http://www.appledaily.com.tw/realtimeneews/article/new/20161221/1017137/>.

31) 「習洪會 習：兩岸分歧終歸要解決」, 『經濟日報』, 2016년 11월 2일, <https://hk.news.yahoo.com/%E7%BF%92%E6%B4%AA%E6%9C%83-%E7%BF%92-%E5%85%A9%E5%B2%B8%E5%88%86%E6%AD%A7%E7%B5%82%E6%AD%B8%E8%A6%81%E8%A7%A3%E6%B1%BA-225527206.html>.

32) 앞의 주 21).

〈그림 3〉 2016년도 중국관광객 입국자 변화³³⁾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차이잉원 취임인 5월부터 대륙 관광객의 입국자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만행 관광객수 제한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에 투자한 대만기업인들 중 민진당 성향의 기업에 대한 압력도 강하게 하고 있다. 차이잉원총통집안의 기업으로 알려진 음식기업 하이빠왕(海霸王)은 중국의 압력에 못이겨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선언을 하였다.³⁴⁾ 또, 총통부 고문단을 구성하던 대만의 기업인들도 총통부 고문직을 사임하였다.³⁵⁾ 이는 모두 중국의 “녹색대상(綠色臺商)”³⁶⁾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 한 결과이다.

하지만 그 외의 경제문화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타이베이-상하이의 두 도시포럼(雙城論壇)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33) 中華民國內政部移民署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v.tw/ct.asp?xItem=1324434&ctNode=29699&mp=1>.

34) 「海霸王集團聲明」, 『中時電子報』, 2016년 12월 5일,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61205000653-260301>.

35) 「海霸王效應 張忠謀、劉金標 辭任總統府資政」, 『中時電子報』, 2016년 12월 10일,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61210000288-260110>.

36) 녹색대상(綠色臺商)이란 중국에서 기업활동으로 돈을 벌면서 대만에서는 민진당을 지원하거나 독립성향의 언론을 펼치는 대만기업을 말한다.

중국의 국무원대만관공실은 9월 17일 대만의 8개현, 시의 시장과 부시장(新竹市, 新竹縣, 苗栗縣, 南投縣, 花蓮縣, 臺東縣, 金門縣, 連江縣)을 중국에 초청하여 18일에 관공실 주임 장즈쥘(張志軍)과 회담을 갖게 하고,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 위정성(俞正聲)도 이들을 접견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중국은 이 8개 현,시와 각종 산업교류, 관광교류, 문화교류, 인적자원 교류 등의 교류를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³⁷⁾ 이는 중국이 대만의 지방정부와의 직접교류를 통하여 차이잉원 정부를 압박하는 통일전선전술로 볼 수 있다.

V. 결론

양안관계에서의 변수는 미중관계의 변화에도 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대만내 정치판도 변화에 더 큰 변수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리명후이나 천수이비엔 정권의 탈중국화 내지는 대만독립성향의 정책은 양안관계의 경색을 가져왔다.

이번 선거에서 민진당의 압승과 민진당보다 더 독립성향이 강한 제3세력인 시대역량이 3석을 차지하는 등 대만국민들의 반중국성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민의를 바탕으로 차이잉원은 대외적으로는 양안관계의 현상유지와 92컨센서스에 대한 회피, 연미, 친일, 원중을 꾀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탈중국화(대만화)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의 트럼프가 돌발적으로 차이잉원과 통화한 것은 대만의 이러한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요소가 된다. 하지만 대만에게 친미정책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에 대한 댓가로 더 많은 무기구입과 기타 경제적인 급부를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며 남중국해문제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침묵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만의 탈중국화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당연히 충돌된다.

37) 「中國對台泛藍8縣市擴大8項交流」, 『蘋果日報』, 2016년 9월 18일, <http://www.appledaily.com.tw/>.

중국은 차이잉원 정부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일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거 마잉지우 정부 시절 약간 허용했던 국제사회의 활동공간을 더욱 좁혀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더불어 대만의 경제적 제재와 동시에 지방정부와 민간사회에 대하여 지속적인 통일전선의 수립을 피하며 대만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이반을 피하고 있고 더욱 확대할 것이다.

하지만 대만 내의 탈중국화나 반중정서는 당분간 쉽게 바뀌지 않을 흐름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지속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이잉원 정부는 노동법, 일본 방사능지역 농산물 수입, 남중국해와 오키노토리군도의 어업 충돌 등에서 비판받으면서 집권 반년이 지난 최근 업무지지도가 40%대로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이러한 정책기조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향후 정책적 실패가 계속되거나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진다면 이러한 흐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차이잉원의 중국정책도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민진당 정부는 자신의 기반인 대만독립에 대한 지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스스로의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정책적 전환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저서

- 문홍호,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서울, 폴리테리아, 2007.
지만수, 이승신, 여지나,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0.

2. 외국자료

- 「蘇起坦承 自創九二共識」, 『蘋果日報』, 2006년 2월 22일,
<http://www.appledaily.com.tw/appledaily/article/headline/20060222/2420410>.
- 「占領立院 花店老闆送「希望」 向日葵給抗議學生、群眾」, 『今日新聞』, 2014년 3월 20일, <http://www.nownews.com/n/2014/03/20/1156798>.
- 「台灣年輕世代「天然獨」 逾8成支持台獨」, 『自由時報』, 2015년 11월 19일, <http://news.ltn.com.tw/news/politics/breakingnews/1513507>.
- 洪耀南, 「馬王鬥波及2014選舉、南北港都首當其衝」, 『今日新聞』, 2013년 9월 18일, <http://www.nownews.com/n/2013/09/18/972759>.
- 「藍營敗選歸咎不團結 換柱讓支持者失望」, 『自由時報』, 2016년 2월 3일, <http://news.ltn.com.tw/news/politics/breakingnews/1593726>.
- 『民主進歩黨黨綱』, <http://www.dpp.org.tw/history.php>.
- 『中華民國第14任總統蔡英文女士就職演說』, 中華民國政府新聞稿, 2016년 5월 20일, <http://www.president.gov.tw/Default.aspx?tabid=131&itemid=37408&rmid=514>.
- 顧爾德, 「分析：蔡英文的人事布局」, 『FT中文網』, 2016년 5월 18일, <http://www.ftchinese.com/story/001067591?full=y>.
- 「海基會董事長 前外長田弘茂接任」, 『自由時報』, 2016년 9월 1일, <http://news.ltn.com.tw/news/politics/paper/1027457>.
- 「亞太、遠景基金會董座 許信良、陳唐山出任」, 『自由時報』, 2016년 8월 10일, <http://news.ltn.com.tw/news/politics/breakingnews/1791059>.
- 「促進轉型正義條例 立院初審通過」, 『自由時報』, 2016년 6월 22일, <http://news.ltn.com.tw/news/politics/breakingnews/1738338>.
- 「不當黨產委員會 顧立雄公布完整名單」, 『自由時報』, 2016년 8월 24일, <http://news.ltn.com.tw/news/politics/breakingnews/1804929>.

「黨產會決議 中投及欣裕台股權30天內收歸國有」, 『自由時報』, 2016년 11월 25일, <http://news.ltn.com.tw/news/politics/breakingnews/1898025>.

「蔡政府企圖「洗綠」文化總會 踢鐵板」, 『聯合報』, 2016년 11월 11일, <http://udn.com/news/story/9586/2099186>.

「民進黨對進口美豬有兩岸問題的考量」, 『中央日報』, 2016년 5월 2일, <https://tw.news.yahoo.com/%E6%9C%AC%E5%A0%B1%E9%BB%9E%E8%A9%95-%E6%B0%91%E9%80%B2%E9%BB%A8%E5%B0%8D%E9%80%B2%E5%8F%A3%E7%BE%8E%E8%B1%AC%E6%9C%89%E5%85%A9%E5%B2%B8%E5%95%8F%E9%A1%8C%E7%9A%84%E8%80%83%E9%87%8F-025300397.html>.

「馬英九登上太平島宣示主權：是「島嶼」而非「岩礁」」, 『BBC中文網』, 2016년 1월 28일, http://www.bbc.com/zhongwen/trad/china/2016/01/160128_taiwan_president_itu_aba_island.

「沖之鳥爭議蔡英文與日本有共識? 國民黨質疑有黑箱協議」, 『今日新聞』, 2016년 5월 24일,

<https://tw.news.yahoo.com/%E6%B2%96%E4%B9%8B%E9%B3%A5%E7%88%AD%E8%AD%B0%E8%94%A1%E8%8B%B1%E6%96%87%E8%88%87%E6%97%A5%E6%9C%AC%E6%9C%89%E5%85%B1%E8%AD%98-%E5%9C%8B%E6%B0%91%E9%BB%A8%E8%B3%AA%E7%96%91%E6%9C%89%E9%BB%91%E7%AE%B1%E5%8D%94%E8%AD%B0-071357908.html>.

「國臺辦：只有明確同屬一中 兩岸雙方才能接觸互動」, 『新華社』, 2016년 12월 14일, 行政院大陸委員會 大陸情勢季報 2016년 10월, <http://www.mac.gov.tw/>.

「【聖多美斷交】中國趁機操作一中 府：傷害台灣人民感情」, 『蘋果日報』, 2016년 12월 21일, <http://www.appledaily.com.tw/realtimenews/article/new/20161221/1017137/>.

「海霸王集團聲明」, 『中時電子報』, 2016년 12월 5일,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61205000653-260301>.

「海霸王效應 張忠謀、劉金標 辭任總統府資政」, 『中時電子報』, 2016년 12월 10일,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61210000288-260110>.

「中國對台泛藍8縣市擴大8項交流」, 『蘋果日報』, 2016년 9월 18일, <http://www.appledaily.com.tw/>.

「習洪會 習：兩岸分歧終歸要解決」, 『經濟日報』, 2016년 11월 2일, <https://hk.news.yahoo.com/%E7%BF%92%E6%B4%AA%E6%9C%83-%E7%BF%92-%E5%85%A9%E5%B2%B8%E5%88%86%E6%AD%A7%E7%B5%82%E6%AD%B8%E8%A6%81%E8%A7%A3%E6%B1%BA-225527206.html>.

3. URL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global_econo&nttId=185508.

박지현, 「대만의 위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헤럴드경제』, 2016년 12월 26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6&aid=0001174646>.

Abstract

The De-Chinization Policy of Tsai Ing-wen and Influence on Cross-Straight Relations

Kong, Yoo-sik*·Kang, Jun-Young**

In the 2016 election, the Democratic Progress Party of Taiwan won the complete victory. Based on this solid public interest, President Tsai is pursuing a policy of de-Chinization. President Tsai appointed the cabinet about diplomacy and mainland china policy, those who are considered as a pro taiwan independency person. Also established pro taiwan independency such as tansitional justice policy, cultural de-chinization policy, china away policy. However, these de-Chinisation policies are under strong opposition and pressure from China. China is pushing for Taiwan's spa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stricting Chinese tourists to Taiwan, and inviting 8 chiefs of the local governments of Taiwan to China to plan the division of Taiwan. As Taiwan's de-Chinisation policy will continue in the future, Cross straight relations will be difficult for the time being.

Key Words : relation of cross-straight, de-chinization policy , re-seizing power of DPP, the pressure of China.

* Lead Author, Research Fellow of Institute of Taiwan Studies.

** Prof.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교신 : 강준영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의국어대학교 본관 808호
(E-mail : jykang@hufs.ac.kr)

논문투고일 2017. 01. 15.

심사완료일 2017. 02. 02.

게재확정일 2017. 02. 07.